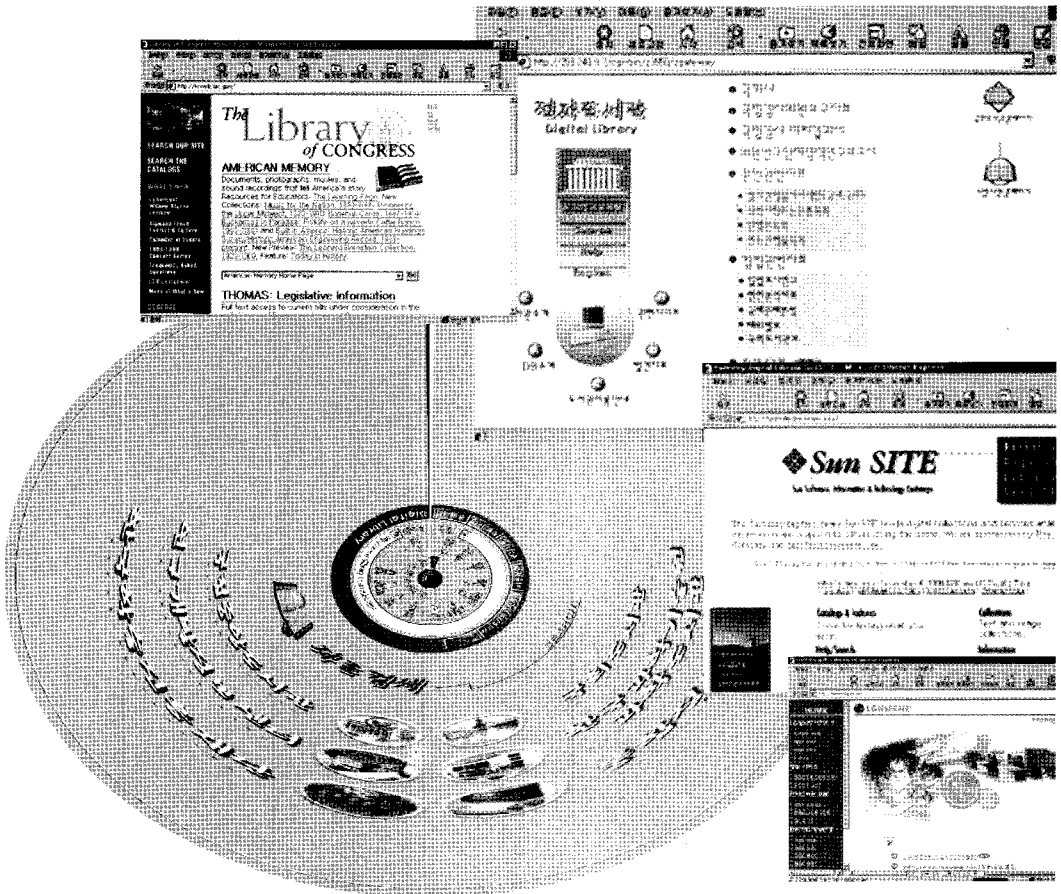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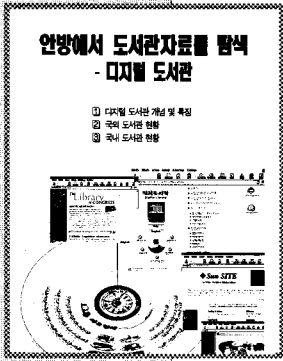
# 안방에서 도서관자료를 탐색 - 디지털 도서관

- ① 디지털 도서관 개념 및 특징
- ② 국외 도서관 현황
- ③ 국내 도서관 현황



1 디지털 도서관 개념 및 특징

#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디지털 도서관



컴퓨터의 보급으로 우리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책을 구입하려든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짬을 내서 서점을 가야했고, 백화점을 이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컴퓨터의 보급 특히 네트워크로 모든 컴퓨터의 연결이 가능한 인터넷의 보급으로 구매자가 직접 서점이나 백화점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을 접속한 후 자신이 원하는 서점이나 백화점 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 결재를 하기만 하면 모든 거래는 완료된다.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 인터넷에는 많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디지털 도서관이다.

디지털 도서관은 과거 전통적인 도서관처럼 직접 도서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컴퓨터상인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무형의 자료실이다. 그렇다면 그 무형의 자료실인 디지털 도서관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하자.

## 디지털 도서관이란?

전통적인 도서관을 한번 이용하려면 일단 먼저 찾고자 하는 책이나 논문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분류함을 뒤져야 하고 그 책의 위치를 파악한 후에는 그 책의 대출목록을 작성하여 사서에게 대출을 부탁해야 한다. 사서가 그 책이나 논문을 찾을 동안 대출자는 또 다시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대출부탁한 책을 손에 쥐게 되었다고 해서 자료수집이 끝이 나는 게 아니다. 또다시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을 발

취하여 복사라는 험한 경로를 거쳐야 한다. 일반 도서관의 복사실을 한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긴 줄을 기다리면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안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도서관 이용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지만 이용자들은 어쩔 수가 없다.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선 이 이상의 좋은 방법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젠 달라졌다. 컴퓨터라는 문명의 이기로 인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는 새로운 도서관이 등장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디지털 도서관이다.

디지털 도서관(digital library)은 학자들에 따라 electronic library(전자 도서관), virtual library(가상도서관), virtual reality library(가상현실 도서관) 등의 용어로 표현한다.

전통적인 도서관들이 활자화된 종이문서를 보관하는 곳이라면 디지털 도서관은 인쇄된 자료 및 서비스들을 디지털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가상의 도서관을 구축하여 도서관 이용자와 컴퓨터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PC를 갖추기만 하면 자료와 각종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이다.

Dowlin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도서관을 아래 3기능으로 구분하였다. 첫번째는 목록을 통한 탐색기능으로 전통적인 도서관에서 사용하던 목록탐색뿐만 아니라 주제어나 서적명을 기입하여 필요정보를 찾을 수 있다.

두번째는 디지털 정보의 생산, 처리, 제공기

능을 들 수 있는데 디지털 도서관의 정보는 전자적 형태의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의 디지털 정보를 만들어 내고 처리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세번째는 이용자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들 수 있다. 전통적 도서관과는 달리 도서관 이용자는 자료이용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보를 사이버 공간에 게재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에 따라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연구가 활발한데 국내는 아직 초보 단계에 불과하다.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도서관은 우리에게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들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을 국가정책으로 설정하고 정보통신기반 건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서비스로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디지털 도서관이다. 우리나라도 96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연구를 실시하여 5개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디지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 디지털 도서관의 특징

디지털 도서관은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관의 소장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기존 도서관의 활자화된 자료 외에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검색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앞서 Dowlin도 언급했듯이 도서관 이용자는 단순히 도서관의 정보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정보를 디지털 도서관에 게재할 수도 있는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도서관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디지털 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은 언제, 어디서든 도서관과 연계해 컴퓨터만 있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도서관처럼 개폐시간에 맞춰 도서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분류함을 뒤질 필요도 자료를 얻기 위해 복사실이나 대출대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디지털화된 컴퓨터만 갖춰져 있으면 리얼타임(Real time)으로 필요한 자료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 ② 자료검색이 용이하다.

현재 진행중인 디지털 도서관은 이용자 편의에 많은 주안점을 두었다. 솔직히 도서관을 한번이라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필요한 도서를 찾기위해 분류함에서 시름을 한 기억은 한두번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도서관 이용자라면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어로 쉽게 필요한 자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다운 받든지 필요한 부분만 찾아 저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도서관의 경우는 '디지털'에 관련된 책을 찾기 위해선 정확한 도서의 제목을 알아야지만 관련 서적을 찾을 수 있지만 디지털 도서관은 Search 기능으로 주제어로 '디지털'을 기입하여 관련 도서를 파악할 수 있어 여러모로 유용하다.

### ③ 전문분야만을 다루는 도서관 운영이 가능하다.

도서관마다 더이상 같은 자료를 모두 수록할 필요가 없어진다. 각 도서관을 컴퓨터로 연계시켜 필요한 자료가 없을 때는 다른 도서관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하면 현재의 도서관처럼 같은 자료를 보유할 필요성이 없어진다. 이렇

1 디지털 도서관 개념 및 특징

전통적인 도서관들이 활자화된 종이문서를 보관하는 곳이라면 디지털 도서관은 인쇄된 자료 및 서비스들을 디지털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가상의 도서관을 구축하여 도서관 이용자와 컴퓨터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PC를 갖추기만 하면 자료와 각종 서비스를 받아들 수 있도록 하자는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이다.

게 되면 중복투자의 비효율성이 제거되어 도서관 운영이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게다가 디지털 도서관마다 전문분야를 특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각 도서관마다 중복 없이 도서를 수록할 수 있으므로 각 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전문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④ 멀티미디어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기존 도서관은 활자화된 인쇄매체가 대부분이다. 물론 간혹 비디오 자료를 갖춘 도서관도 몇몇 존재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인쇄매체에 국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비해 디지털 도서관은 디지털화된 활자외에도 동영상은 물론 음성 정보까지도 수록이 가능하여 기존 도서관보다 한차원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전통적 도서관은 문자를 통해 정보나 지식을 제공한다면 디지털 도서관은

문자와 동영상, 음성까지도 포함한 다각적인 해설로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이해하도록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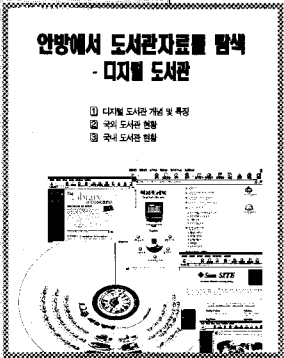
⑤ 자료수록의 한계를 극복한다.

기존 도서관은 물리적인 자료로 인해 보관이나 관리에 많은 인력과 돈이 필요했다.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건물의 크기에 따라 수용하는 자료도 한계가 지워졌으나 디지털 도서관은 물리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무한대로 자료를 저장할 수 있다. 게다가 실제 존재하는 물리적 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보관이나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지 않아 자료관리나 보관에 필요한 인력이나 돈 등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물론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의 자료들을 디지털화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지만 향후

전통 도서관과 디지털 도서관의 차이

전통 도서관	디지털 도서관
제한적, 물리적 공간	공개적, 논리적 공간
서지정보중심	전문(full-text) 중심
소유개념으로서의 문헌	공유개념의 문헌
물리적 접근 및 정보전달	논리적 접근 및 전자정보 전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의 서비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는 서비스
수작업에 의한 정보처리	자동화된 정보처리
자료중심	서비스 중심
인쇄매체, 텍스트 중심	전자매체, 멀티미디어 중심
읽기중심의 정보이용	읽고 보고 듣는 등 다양하게 정보이용
사서중심의 운영	이용자중심

\* 참고자료: 한국의학도서관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경제적이다.

또한 전통적인 도서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같은 논문이나 서적을 2인 이상이 공유할 수가 없었으나 디지털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늘어나면 같은 논문이나 서적이란 할 지라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어 정보를 얻기가 훨씬 수월해지게 되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부대효과를 낳는다. 시·공간에 상관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격차를 없앨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국내의 이용자가 최근의 미국 의학논문집을 얻고자 한다면 미국의 디지털 도서관 사이트에 그 논문제목을 기입한 후 클릭만으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과거 거리에서 발생하던 지역간의 정보격차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획득과 자료활용으로 인해 지식습득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 해결해야 할 과제들

디지털 도서관의 여러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향후 예기되는 몇가지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저작권 문제다. 디지털 도서관의 경우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검색된 정보에 대한 용이한 재생산으로 인해 저작권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 도서관을 비롯한 공익단체들이 디지털 환경하에서의 저작권 개정 움직임에 따라 공익성 보장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강력한 저작권의 행사로 인해 공정한 자료이용이 제한받을 가능성을 우려한 도서관 협회등 공익단체들이 저작권의 제한을 주장하며 의회와 행

정부 등에 각종 압력을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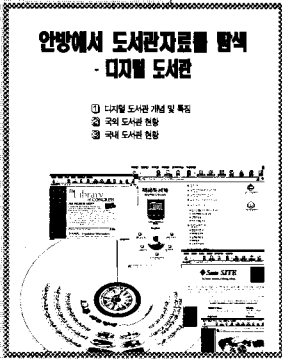
또한 지나치게 편의 위주의 정보제공으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 출판사들은 디지털 도서관에 게재한 자신들의 정보를 누가 읽고 프린트하는가를 추적하여 정보에 대한 인쇄비용을 청구할 것이다. 게다가 사용자등록같은 절차시에 개인정보의 유출은 얼마든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외에도 컴퓨터활용능력에서 오는 정보향유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불가피한 정보격차가 생길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저자, 출판사, 학회, 편집자, 인쇄업자, 신문사, 책도매상, 서점, 도서관 등 정보관련 주체들간의 정보보급체계 붕괴로 인한 정보제공의 무질서가 우려된다. 지나치게 많은 정보들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이 정보홍수라는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디지털 도서관의 출현과 정보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향후의 디지털 도서관은 점점 더 총체적이고 대규모화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디지털 도서관들과의 상호연동을 통하여 세계의 도서관이 하나의 디지털 도서관처럼 서로 연결되어 서비스할 날도 얼마남지 않았다. 앞으로 디지털 도서관과 관련해서 정보검색, 정보수집, 정보 및 지식의 활용, 학습시스템, 협동작업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것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확산으로 화상, 영상, 음성정보 등 멀티미디어 정보 활용이 두드러져 디지털 도서관 형태로 시각화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즉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명칭이 디지털 도서관보다 가상 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더 많이 불리워질 것이다.

아직은 초보단계에 불과하지만 디지털 도서관 구축사업이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컴퓨터 1대로 온세계의 도서관을 누비며 필요한 자료를 안방에서 모두 찾아보는 날도 멀지 않았다.

## 해외 디지털 도서관 현황



### 미국

미국은 Information Superhighway(정보고속도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디지털 도서관 구축의 선두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은 거의 모든 도서관의 서지목록을 전산화하고 이것을 전산망을 통해 검색하도록 하여 각종 도서관의 내용을 전국민들이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 ● 미국 의회도서관의 전자도서관 (<http://lcweb.loc.gov/>)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도서관으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 미 의회가 소장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도서관들끼리 전자형태의 자료를 공유하도록 국가적인 모델의 개발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이곳은 전국민들의 공통관심사와 미의회 도서관에서만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저작권 문제가 없는 미국 역사나 문화자료의 전자화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저작권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 ● NSF/ARPA/NASA Initiative (<http://www.informedia.cs.cmn.edu/>)

일명 DLI(Digital Library Initiative) 프로젝트라 불리는 계획으로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국립과학재단)과 국방성 산하의 ARPA(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그리고 NASA 등 3개 기관이 공동 출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994

년 카네기 멜론대학을 비롯한 버클리대, 미시건대, 산타 바바라대, 스탠포드대, 일리노이대 등 미국내 6개 대학이 주축으로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6개대학이 독자적인 연구분야에 따라 시범적인 디지털 도서관 구축을 통해 각각의 필요 기술개발을 시도하여 최종적으로 디지털 도서관 구축과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네기 멜론대학은 주로 자연과학과 수학분야를 다루는 도서관으로, 공영 TV방송인 피츠버그 WQED의 프로그램, 영국 BBC가 통신 대학용으로 제작한 비디오 강의자료 등 비디오 데이터베이스를 음성, 이미지, 자연어 등의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찾아볼 수 있는 대화형 온라인 디지털 비디오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버클리대학은 멀티미디어 정보의 문자, 동영상, 상업카탈로그, 이미지, 음향, 지도, 학술 및 기업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이용해 환경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도서관 모델을 추진중이다. 이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 정보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보를 컴퓨터에 게재시킬 수도 있다.

미시건대는 지구, 우주공학 분야의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규모 멀티미디어 디지털 도서관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연구한다.

산타바바라대학은 대학이 보유한 많은 자료를 활용해 다양한 구조의 인덱스와 메타 정보로서 지도, 이미지, 사진 자료 등 이미지 자료의 전자화를 위한 표준적인 데이터 표현기법

및 검색기법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리노이드대학은 광학학술지 중심의 도서관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스탠포드대학은 컴퓨터 관련 문헌을 이용하여 검색모델, 위치정보, 메타정보 모델 등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일본

미국과는 달리 정부의 여러 기관이 산발적으로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도 디지털 도서관 구축에 필요한 기술을 각자가 개발하고 있다.

### ● Nation Center for Science Information System

과학기술분야 학술지를 일본 전역의 학술기관과 대학에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과학정보 및 학술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한다.

### ● 일본 국회도서관

일본 국회도서관은 칸사이킨이라는 디지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축적하여 원문제공서비스를 실시한다. 기존의 도서관 업무와 동시에 국가 디지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 ● ARIADNE(Advanced Retrieval for Information and Documents in the Network Environment)

디지털 도서관 연구그룹과 후지쓰사가 공동으로 1990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였다. 이곳은 자료검색 기능이외에도 복수도서의 동시참조, 사전참조, 메모, 번역, 음성 출력 등 다양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 영국

영국 국립도서관(The British Library)은

디지털 및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여 모든 이용자들이 국립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Strategic Objectives for the Year 2000"을 발표하였고 이를 근거로 1993년 디지털 도서관 구축 프로젝트인 "Initiatives for Access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국립도서관은 세계 최고분량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전세계의 이용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한다는 설립취지를 밝히고 있다. 현재의 방문과 같은 전통적인 도서관 이용방법과 함께 다양한 디지털화된 자료를 전세계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한다는 입장이다.

##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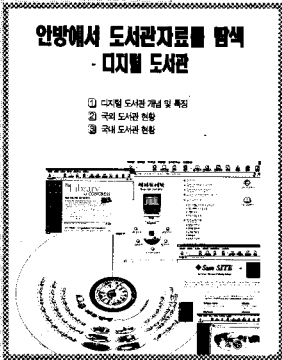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국내 및 국제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누구나 새로운 기술을 충분히 활용함을 목표로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1,300만 건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도서, 화상자료, 시청각 자료를 조직적으로 축적하고 여러곳에 분산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중점적으로 연구중인데, 정기간행물, 프랑스 문학, 언어학, 역사학을 1단계 디지털화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21세기 초까지 국토전체를 단일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한 정보화 백서인 IMT2000을 1992년 발표하여 2000년을 겨냥한 경제적, 실용적 도서관 구축을 위한 Library 2000에 의해 통합정보검색 시스템인 IIRS(Integrated Information Retrieval System)가 진행중이다. 공공도서관 시스템이 원활하게 연계되어 네트워크에 경계선이 없어지며 기업체 및 지역사회와도 연계된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③ 국내 디지털 도서관 현황

# 국내 주요 디지털 도서관



## 주요 디지털 도서관

국내의 경우는 연구기관이나 정부주도의 연구보다는 각 대학의 독자적 개발이 주를 이룬다. 정부에서는 선진국들의 디지털 도서관 구축에 자극을 받아 지난 97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차원의 디지털 도서관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는 단계별로 수행하고 있으며 최종목표는 초고속 통신망에 기반을 둔 분산형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원문자료를 검색,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환경을 조성하여 늦어도 2000년까지는 디지털 도서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있다.

정부차원의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는 디지털화된 정보부족, 저작권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부족등으로 아직은 초보단계에 불과하다.

국내 대학교들도 점차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고 정보화대학으로 선정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의 디지털 도서관 개관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7년 홍익대를 필두로 많은 대학들이 디지털 도서관 개발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건국대는 전산, 문헌정보학 분야를 전공관대는 고서분야, 숙명여대는 의학분야를 카톨릭의학대학은 의학관련 문헌, 첨단학술정보 등의 자료를 담고 있는데 이외에도 많은 대학들이 전자도서관을 운영하며 각 대학들의 특성에 맞는 전문화분야로 구축을 모색하고 있어 각 대학의 연계된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대표적인 디지털 도서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디지털도서관(<http://www.dlibrary.or.kr>)

디지털 도서관 시범사업은 정보통신부에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초고속 원격 시범 사업의 하나로서, 학술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의 WWW를 이용하여 서비스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어느 곳에서나 자료의 목록, 초록은 물론 본문(full-text)까지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개발된 시스템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 연구개발정보센터, 한국학술진흥재단 5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문헌종합목록 정보와 고서 귀중본 본문데이터베이스를 위주로 서비스하며 국회도서관은 입법부 발간자료와 국정감사 의원요구자료 본문 데이터베이스를 그리고 학위논문의 경우는 인문사회과학 박사학위는 간단한 초록만 볼 수 있고 그의 석박사학위는 목록검색만 가능하다. 한국과학기술원 과학도서관은 KAIST 석·박사 학위논문 목록·초록정보와 본문 데이터베이스, 교수연구논문목록정보와 본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며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외국취득 박사학위논문 목록정보와 본문 데이터베이스 등을 수록하고 있다.

● LG 상남도서관(<http://www.lg.or.kr>)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도서관으로 1996년 4월 17일 개관하였다. LG상남도서관은 LG연암문화재단이 디지털 도서관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학기술 전문도서관이다.

이곳에는 전기·전자·화학 등 과학기술 관련 정보전문 도서관으로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해외과학 기술관련 정보를 포함한 해외 학술저널, 국제학술회의, 학술영상자료, 국제학술회의 개최정보, 학술관련 CD롬 등을 수집하

여 저장하고 있어 교수 및 대학원생, 정부출연 연구소나 기업연구소의 연구원 등 주로 이공계 출신의 이용자들이 많다. 이곳의 자료를 얻으려면 회원으로 등록해야만 이곳의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으며 정보이용료는 무료다. 일단 회원으로 등록하면 언제, 어디에서든 도서관 수록 정보를 검색하여 Full-text(원문 이미지 파일)를 제공받을 수 있다.

● 한울

(<http://members.iworld.net/newhanul>)

분산 멀티미디어 디지털 도서관으로 현재 서울대학교에 존재하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원천들과 KAIST 소재 연구개발정보센터, LG상남도서관, 자동화기술연구정보센터 등에 소장되어 있는 제반 디지털 정보들에 대한 통합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 KEDI 전자도서관

(<http://www.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분야 전문 도서관으로 국내외 교육관련 연구자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서비스한다.

※ 참고자료:

- 미래의 도서관-전자 도서관 :조현양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한국의학도서관, 1996년 제23권 2호)
- 각국의 전자도서관 추진현황 :김남진, 심명야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한국의학도서관, 1996년 제23권 2호)
- 디지털 도서관 추진계획 :송실대  
(<http://www.members.iworld.net/unison/about-digital.html>)
- 전자도서관의 개념 및 동향 :김홍택의 3인  
(정보과학회지 1997년 2월)
- <http://www.dlibrary.or.kr>
- <http://www.lg.or.kr>